

**113.226\* 한국철학사 3-3-0****History of Korean Philosophy**

한국의 역사적 문화와 學으로서의 철학을 한데 엮는 방법론의 모색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선 한국철학의 출발점의 문제 및 원시 사상의 근본가정을 살펴본 다음,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종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외래사조가 한국적으로 소화, 흡수되어 변용 및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역사적인 조감법으로 개괄한다.

This course gives students an opportunity to learn Korean philosophy by examining Korean history, culture, and indigenous thought and its premises. The students will then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Koreans have assimilated foreign thoughts into unique philosophies.

**113.227\* 기호논리학 3-3-0****Symbolic Logic**

현대 기호논리학의 諸영역인 명제논리, 양화논리, 관계논리 및 집합론 등을 다루며, 일상 언어와 인공언어인 기호논리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고 기호논리체계가 적합한 인공언어체계인지 등의 여부를 따지는 메타논리학을 소개함으로써 학문의 토대를 이루는 이론구성의 한 모형을 제시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propositional logic, quantificational logic, relational logic, and set theory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rdinary language and artificial language—i. e., symbolic logic. In addition, they will discuss meta-logic, which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ystems of symbolic logic are appropriate as artificial languages.

**113.300 철학 교육을 위한 논리학 3-3-0****Logic for Teaching Philosophy**

고등학교 철학 교육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이를 위해 고등학교 철학 교육에서 형식 논리학과 비형식 논리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먼저 과목 전반부에서는 형식 논리학과 비형식 논리학의 기본적 내용을 개괄한다. 과목 후반부에서는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 및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실제로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논리학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The chief aim of teaching philosophy in high school i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think logically and critically. This course investigates various ways to achieve this aim through the use of formal and informal logic in teaching philosophy.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is devoted to a survey of formal and informal logic. The second part focuses on the discussion of how to apply logical knowledge to the actu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aterials in high school philosophy textbooks and related literature.

**113.318 철학교육론 3-3-0****Theories of Teaching Philosophy**

고등학교에서의 철학교육의 목표는 각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등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식과 도덕감을 갖춘 민주사회의 한 창조적 역군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철학교육의 내용은 어떠한가 하며, 또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논의한다.

The purpose of philosophy classes in high school is to

cultivate students' autonomous, critical, and reflective thinking. This class researches and discusses how a high school philosophy education can encourage students to become creative members of a democratic society, with sound common sense and morality.

**113.319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Materials and Methods in Teaching Philosophy**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철학」, 「논리학」 교과서와 교사 지침서를 분석하면서 그 활용법을 익히고, 참고 교재 개발 방법, 교안 작성법, 교수법, 학생평가방법 등을 강론하며, 마지막에는 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nalyze junior high and high school philosophy and logic textbooks, and will research, develop, and discuss methods to utilize best these texts.

**113.343\* 윤리학 3-3-0****Ethics**

19세기 이전의 서양 윤리학에서 제기된 주요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학설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유형에 따라 소개함으로써 고전적 윤리학의 기본개념들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먼저 윤리학의 기본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칸트, 흄, 밀 등의 접근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학설에 대해 간략하게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important theories of prominent problems in pre-19th century ethics. We will critically survey the theories of Aristotle, Spinoza, Kant, Hume, Mill and others who proposed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n ethics. This introductory survey will help students grasp the basic concepts of classical ethics.

**113.345 사회철학 3-3-0****Social Philosophy**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날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 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 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

The course examines the debate on methodology for understanding social reality and evaluates the validity of empirical and analytic methods used in constructing a social theory. And it enquires into the structure of the social 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also into the feature of co-existence of human beings.

**113.352 인식론 3-3-0****Epistemology**

인식론이란 앎의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철학분야이다. “앎의 본성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앎이 성립하는가?”, “안다는 것과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등이 인식론의 주된 물음들이다. 이 과목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적 논의들을 훑어보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Epistemology is an area of philosophy that investigates philosophical grounds of knowledge. The key questions in

epistemology are these: What is the nature of knowledge? What conditions should be met for knowledge to obtain? What distinguishes knowing from merely believing? The course examines representative theories that answer those questions.

### 113.357 한국불교철학 3-3-0

#### Korean Buddhist Philosophy

이 과목은 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의 역사와 철학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원효(元曉), 지눌(知訥), 의천(義天), 휴정(休靜), 보우(普愚) 등 대표적 고승들의 사상을 학습하고, 한국 불교의 대중인 선불교의 철학적 성찰을 시도한다.

This is an above-intermediate course that requires general knowledge of Buddhism. The course deals with history and philosophy of Korean Buddhism. Wonhyo, Jinul, Euicheon, Hyujeong and Bowoo are among the major philosophers the course will cover. Philosophical contemplation of Son(禪), the mainstream of Korean Buddhism, is also discussed.

### 113.360 서양근대철학 3-3-0

#### Modern Western Philosophy

서양 근세의 주요 철학활동의 의의를 밝히고 철학사상의 큰 흐름을 따라 先哲을 추적하며, 서양근세철학 문화가 현대문화에 미친 영향을 구별한다. 또한 서양근세철학이 제기했던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탐구해 봄으로써 이 문제들이 역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철학적 과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한다. 이성론(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경험론(로크, 버클리, 흄), 비판철학(칸트), 독일이상주의(피히테, 셸링, 헤겔)의 형성배경과 중심내용 및 의미 천착이 이 과목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main philosophical works of the modern western era, and their impacts on our contemporary cultur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hilosophical problems of modern times and assess their significance. The course covers the development and content of rationalism (Descartes, Spinoza, Leibniz), empiricism (Locke, Berkeley, Hume), critical philosophy (Kant), and German idealism (Fichte, Schelling, Hegel).

### 113.362 서양중세철학 3-3-0

#### Medieval Western Philosophy

서양 기독교철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교부철학, 스콜라철학의 주요문헌들을 통해 개관하여 서양철학의 중세적 전통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회담철학과 만남을 통해 서양에 유입된 기독교가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며 이 문제들을 어떤 개념들을 통해 체계화해 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서양철학의 중세적 토대를 이해하게 하고 아울러 서양 근대철학의 형성에 미친 중세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medieval tradition in Western philosophy by surveying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Christian philosophy through the key original texts of patristic philosophy and Scholasticism. The course will examine the problems that the Christian religion faced and the way in which it managed to solve them—through a systemization of its own conceptual framework. In the course, students will arrive at an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medieval thought on the formation of modern Western philoso-

phy as well as the medieval foundation of Western philosophy in general.

### 113.365 언어철학 3-3-0

#### Philosophy of Language

언어와 세계의 관계, 언어와 사유와의 관계 및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가 제기하는 철학적 문제를 형식언어, 변형언어, 해석학 및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비교, 검토한다.

The philosophical problems concerning the relations between language and the world, language and thought, language and culture are examined and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s of formal language, transformed language, hermeneutics and structuralism.

### 113.366 실존철학 3-3-0

#### Existentialism

이 강의에서는 실존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인 키르케고르, 니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 등의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existentialism by examining the work of the philosophers representative of this tradition, such as Kierkegaard, Nietzsche, Jaspers, Heidegger, Sartre, and Camus.

### 113.367 현대프랑스철학 3-3-0

#### Contemporary French Philosophy

20세기 프랑스철학사를 소개하는 과목이다. 과학철학(베르그손, 마솔라르, 시몽동), 실존주의(사르트르, 메를로퐁티, 레비나스), 구조주의(라캉, 알튀세르, 푸코), 탈구조주의(데리다, 들뢰즈, 바디우)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프랑스철학의 흐름을 강의하고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리오타르, 보드리야르)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강의의 초점은 푸코, 데리다, 들뢰즈 등과 같은 구조주의 전후의 철학자에 놓일 것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This course provides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rench Philosophy in the 20th century, which follows five steps: philosophy of science (Bergson, Bachelard, Simondon), Existentialism (Sartre, Merleau-Ponty, Levinas), Structuralism (Lacan, Althusser, Foucault), Post-structuralism (Derrida, Deleuze, Badiou), and Postmodernism (Lyotard, Baudrillard). Main focus will be placed on the philosophers before and after Structuralism such as Foucault, Derrida, and Deleuze, but this emphasis can chang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 113.368 현상학 3-3-0

#### Phenomenology

본 교과목은 현대철학의 핵심적인 사조 중의 하나인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을 검토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선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현대의 위기, 실증주의 비판,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 영역적 존재론, 형식적 존재론, 현상학적 심리학, 초월론적 현상학, 지향성, 초월론적 주관, 생활세계,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 현상학적 환원, 질적연구 등의 문제들을 살펴본 후 셸러, 하이데거, 인가르덴, 사르트르, 가다머, 메를로-퐁티, 레비나스, 리코르, 뒤르헨프, 슈츠, 거버치 등이 발전시킨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을 살펴본다.

Phenomenolog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contemporary philosophy.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basic issues of phenomenology. It will first deal with the basic issues of phenomenology as presented by E. Husserl, such as the crisis of modern society, the criticism of positivism, the idea of phenomenology as a rigorous science, regional ontology, formal ontology,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intentionality, the noesis-noema correlation, transcendental subjectivity, intersubjectivity, the life-world, the phenomenological reduction, transcendental idealism, qualitative research, etc. Thereafter it will deal with the basic issues of the various kinds of phenomenology subsequently developed by M. Scheler, M. Heidegger, R. Ingarden, J.-P. Sartre, H.-G. Gadamer, M. Merleau-Ponty, E. Levinas, P. Ricoeur, M. Dufrenne, A. Schutz, A. Gurwitsch, etc.

**113.369 불교철학특강 3-3-0**
**Topics in Buddhist Philosophy**

인도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를 폭넓게 조망하면서 인도와 동아시아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불교철학을 주제별로 특화해서 공부한다. 불교의 철학적 사유 전통에 대해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학기에 따라 불교 인식론, 불교 윤리학 등의 다양한 주제가 소개될 것이다.

This course offers an extensive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topics in Indian and East Asian Buddhism, examining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Buddhism in India and East Asia as a whole. In approaching the philosophical traditions of thought in Buddhism we will take diachronic and synchronic points of view. Various topics will be introduced depending on the semester, such as Buddhist epistemology and Buddhist ethics.

**113.370 제자백가철학특강 3-3-0**
**Topics in the Hundred Schools**

제자백가는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이들은 동일한 철학적 배경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전개해 나갔다. 이 수업에서는 이들이 공유한 철학적 배경, 제자백가들 자신의 주장, 그리고 그들 사이의 논쟁을 검토한다.

The numerous schools of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raised diverse, different philosophical issues, but they developed their thoughts against a shared philosophical background.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amine (1) the common background, (2) the different philosophical positions of The Hundred Schools and (3) controversies between the Schools.

**113.371 신유학특강 3-3-0**
**Topics in Neo - Confucian Philosophy**

신유학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신유학자들의 저술을 읽고 토론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inquire into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Neo-Confucianism, as well as its characteristics. The students will read and discuss major texts written by Chinese and Korean Neo-Confucianists.

**113.454 중국근현대철학 3-3-0**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Philosophy**

이 과목은 청대고증학과 그 이후 중국 현대 신유학에 이르기까지, 서양사상의 충격과 영향 하에서 중국철학의 자체문제를 19세기 이후 어떻게 주체적으로 형성하고, 전통철학의 정당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핀다. 특히 5.4운동 이후 문화보수주의 학자들의 전통사상 긍정론 주장에 주목하며, 중국 근대철학의 강점과 현실성을 파악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ways Chinese thinkers - from the bibliographical school of Qing dynasty up to modern new Confucianism - justified the key principles of Chinese philosophy against the onslaught of Western thoughts. The strengths of modern Chinese philosophy will be duly appreciated by focusing on the cultural conservatives who defended the traditional philosophical thoughts after the May Fourth movement.

**113.455 송명대신유학 3-3-0**
**Neo-Confucianism in Song and Ming Dynasties**

이 과목은 주희가 성리학을 종합한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주희 이전의 주돈이, 소옹, 장재, 정호, 정이 등의 사상을 검토하고, 주희 사상의 형성과 그 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또한 주희 사상과 큰 차이를 보이는 명대 왕양명의 철학을 다룬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ilation process of neo-Confucianism by its figurehead, Zhu Xi, the course will read texts of the scholars that came before him and greatly influenced him: Zhou Lianxi, Zhang Zai, Cheng Hao and Cheng Yi. Wang Yangming who comes after will b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Zhu Xi for better interpretation of Confucianism.

**113.461A 서양고중세철학특강 3-3-0**
**Topics in Ancient and Medieval Western Philosophy**

서양 철학의 고중세 시기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개념과 논변들이 어떤 것인지를 당시 작품의 강독을 통해 검토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문헌이 일차적인 선택 범위에 들며, 철학적 분석과 문헌학적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서양 고중세의 철학적 문헌을 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amine the philosophical questions, concepts, and arguments that were formed and implemented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 of Western philosophy. It will deal primarily with the works of Plato, Aristotle, Augustine, and Thomas Aquinas. The course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ancient and medieval Western philosophical works through not only analytical but also philological and historical methods.

**113.462 서양현대철학특강 3-3-0**
**Topics in Contemporary Western Philosophy**

현대 서양의 주요한 철학사조들을 대표하는 고전적인 저작들에 대해서 강독한다. 이를 통해 현대 서양철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철학서를 치밀하게 읽고 소화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read classical texts representing main philosophical currents in contemporary western thoughts. They will, thereby, not only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western philosophies but simultaneously be trained in reading philosophical texts.

**113.463 과학철학 3-3-0**
**Philosophy of Science**

과학과 관련된 주된 철학적 주제들을 선택하여, 현대의 대표적 견해들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선택 가능한 주제들로는, 과학의 목표와 방법, 과학 이론의 구성과 역할, 과학적 설명, 실재론/반실재론 논쟁, 이론간 환원, 과학의 합리성 및 객관성, 과학과 사이비 과학의 구분, 자연 법칙 등이 있다.

Certain philosophical topics related with science will be selected and the related, representative views will be examined critically. Some of the possible themes include the purpose and methods of science, the construction and role of scientific theory, scientific explanation, realism/antirealism debate, inter-theoretic reduction, the distinction between science and pseudo-science, and the law of nature.

**113.464 심리철학 3-3-0**
**Philosophy of Mind**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古代로부터 이어지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 과목에서는 ‘마음과 신체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문제와, ‘심리용어의 의미는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가’라는 의미론적인 문제, ‘자신의 마음과 他人의 마음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하는 인식론적인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이 과목은 위의 주제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강의한 후 이 강의내용과 강의시간에 제시된 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결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What is the nature of mi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asked since the ancient times. This course deals with the ontological question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mind and body, the semantic question of the meanings of mental terms, and the epistemological question of how to know one’s own mind as well as others’.

**113.465 사회철학특강 3-3-0**
**Topics in Social Philosophy**

이 과목은 인간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전체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기 인식,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인간과 사회 변화과정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러한 탐구를 위해 올바른 방법론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 존재의 근본 양식에 대해 철학적으로 규명해 본다.

This course intends to investigate the self-conception of human beings, the interrelations among human beings, and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It tries to locate a proper methodology for that investigation and illuminates philosophically the fundamental manner of existence of human beings in social contexts.

**113.466 형이상학 3-3-0**
**Metaphysics**

이 과목은 세계 전체의 구조와 구조원리, 세계 내에서의 인간의

지위와 인생의 의미, 세계의 존재근거와 신의 존재여부, 세계와 신 그리고 인간의 상호관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찰한다. 수업은 각 주제들에 대한 강의 및 토론 그리고 각 주제와 관련된 고전들에 대한 강독으로 진행된다.

This course concerns itself with various metaphysical topics such as the fundamental world-constitutive principle, the existence and properties of God, metaphysical theories of the self,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world, one’s self and God.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metaphysics through this course. The class will consist of lectures on the major topics as well as readings on the related classical texts.

**113.467A 윤리학특강 3-3-0**
**Topics in Ethics**

이 과목에서는 규범윤리, 응용윤리, 메타윤리, 윤리학사 등 윤리학의 여러 탐구 영역에서 제기되는, 이론적이거나 실천적인 주요 주제나 특정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에 따라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현재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는 실천적 문제들을 윤리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거나, 현재 학계에서 논의의 초점에 있는 윤리학적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ntends to deal with major theoretical and practical themes or specific problems arising in various realms of ethical inquiry such as normative ethics, applied ethics, metaethics and the history of ethics. Accordingly this course will provide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 actual practical problems under the ethical perspective or discuss sophisticated academic themes in ethics in an in-depth manner.

**113.470 서양근대철학특강 3-3-0**
**Studies in Western Modern Philosophy**

데카르트로부터 발단하여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통해 전개된 서양 근대 초 유럽대륙의 이성주의와 베이컨, 흄스, 로크, 버클리, 흄스로 이어진 영국의 경험주의의 합류 지점에서 ‘이성 비판’이라는 방법을 통해 형성된 칸트의 철학을 중심에 두고, 피히테, 셸링, 헤겔의 독일이상주의 철학의 핵심적 주제를 함께 강론한다. 인간의 역사는 다름 아닌 인간의 ‘동물성’과 ‘이성성’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고, 저러한 근대사상의 가닥들은 근원적으로는 ‘이성적 동물’인 인간의 이중성의 발로임을 성찰하면서,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서양근대철학의 제학파가 인간 문화의 최고의 가치인 진(眞)·선(善)·미(美)·성(聖)·화(和)의 원리를 어떻게 해명하려 했는가를 고찰한다.

In this course, we examine central philosophical topics that emerge within the philosophical tradition that arose on the Continent with Descartes, Spinoza, and Leibniz, and the British tradition of Bacon, Hobbes, Locke, Berkeley, and Hume, together with Kant’s critical philosophy,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German Idealism as exemplified by Fichte, Schelling, and Hegel. In particular, we will focus on how the views of these philosophers of this turbulent time period are distinctive and relate to each other with regard to such issues as truth, value, beauty, religion, and peace.

**M1252.000100 문화철학 3-3-0**
**Philosophy of Culture**

이 강의에서는 문화에 대한 주요한 철학적 질문과 입장을 소개

하고, 이를 통해 문화현상의 철학적 함축과 문화변동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한다. 비코에서 헤겔에 이르는 근대 문화철학의 입장을 개괄하고, 구조주의 이후의 현대 프랑크푸르트학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비평, 정신분석 등의 현대 문화이론을 참고자료로 제시할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도래, 영상의 확산, 페미니즘과 생태문제 등 이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현상을 토론하며, 궁극적으로는 동서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철학적 입지점을 모색한다.

This course aims to present key questions and theories of cultural philosophy and examin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 of cultural phenomena and the logical structure of cultural change. It introduces students to principal positions found in modern tradition, from Vico to Hegel, and a range of contemporary ideas, such as the modern French philosophy after structuralism, cultural criticism of the Frankfurt School and psychoanalytic cultural theory. Students will discuss some critical contemporary issues like globalization,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proliferation of moving images, feminism, and ecological problems. The course, ultimately, tries to find a philosophical position that can embrace the Eastern and the Western cultures.

M1252,000200 **도가철학 3-3-0**

**Taoist Philosophy**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장자>를 선독하면서 도가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도가의 주요 이론들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유가, 묵가, 명가 등 당대 다른 사상가들과의 비교 검토 역시 함께 진행할 것이다.

Students will review of the major concepts of Taosim, and study major theories and the views on human life of Taoism through the readings of “Daodejing” and “Zhuangzi,” the two major classics of Taoist Philosophy. Students will be also expected to compare Taoism with Confucianism, Mohism, and the school of Name.

M1252,000300 **역사철학 3-3-0**

**Philosophy of History**

역사가 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이나, 특히 근대 이후 역사가 고유한 의미에서 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철학은 역사화 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이 교과목은 역사에 대한 철학적 접근유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역사를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특성을 탐구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세계의 근본적인 역사적 성격을 해명한다.

While history had long been an object of philosophical interests,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it has been the object of philosophy in a genuine sense and philosophy itself became historicise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course aims to illuminate the fundamental historicity of human beings and the world as well through systematizing the philosophical approaches to history and investigating the methodology of different historical understandings. eastern cultures.